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수철



지난해에 입적한 법정 스님은 땀감으로 쓰던 참나무 장작으로 의자를 만들고...

들기도 한다. 모든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재는 작은 단위로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

법정스님의 의자와 모래시계

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365 개의 모래 알갱이를 소모한다. 우리 발밑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가차없고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불니바퀴 같은 것만은 아니다...

의 흐름을 남보다 더 빠르게 인식한다고 한다. 때문에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시간의 흐름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 고통스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느리게 흐른다.

그러나 올해에 나는 그 빠른 물살 속에서 먹도 않고 서핑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자한다...

으로 집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마라톤이나 자전거 경기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페이스 메이커라고 부른다...

며칠 전에 겨울 산행을 하다가 광광 얼어붙은 폭포를 보았다. 그러나 그 두툼한 얼음층 안에서는 작은 물줄기가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 나는 그 빠른 물살 속에서 먹도 않고 서핑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자한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시간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적절히 소비하고 관리하고 또 투자도 하려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지자체 복지비 지원 대폭 늘려야

사회복지비 증가가 가뜩이나 열악한 이 지역 지자체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이 그만큼 커진 때문이다.

광주시의 복지예산은 지난 2005년 3014억 원에서 올해 9821억 원으로 최근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도 2005년 948억 원에서 301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3월부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인 '0~2세 무상보육사업'이 시작돼 광주시 628억 원, 5개 자치구가 205억 원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데 있다. 광주·전남 재정자립도는 각각 47.5%, 20.7%로 전국 평균 52%를 크게 밑돌고, 일선 자치구나 전남의 시군도 여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정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며 지원율을 90%까지 올려주도록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부실한 응급의료체계 이대론 안 된다

지난달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실습 중이던 영광실고(3년) 김도군이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뒤, 3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5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군은 이날 오후 8시27분께 한국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분야 의사가 없는 곳이라 밤 9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는 수술 후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중환자실이 부족해 밤 11시 30분께 기동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새벽 1시40분경에 수술을 받았다.

만일 환자 발견 후, 곧바로 한국병원에서 진단 후 '1339'(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을 했더라면 해당 분야 수술의사가 있는 병원과 중환자실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최소 1시간 이상 수술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우, 발병 직후 단 몇 분이라도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환자를 최단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병원 '행방'이 인체 5시간이나 환자를 방치한 것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시에도 1차 진료병원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처치 및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응급실·중환자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1339에 연락했다더라면 그만큼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실한 응급의료체계에선 김군과 같은 불상사가 누구든 예외될 수 없다. 응급환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 기본 정보와 중환자실 수용 여부를 알고 대처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병원 측이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는 게 도리다. 의료당국은 1339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경직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강채미

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 설날. 벌써 '명절증후군'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주부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명절 전후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명절에 힘든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 많이 생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잠을 설치게 되고, 명절이 끝난 후에는 근육통 같은 육체적 피로에 시달리기도 한다.

명절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명절 동안 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

명절증후군 피할 수 없으며 즐겨라

게 정리해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한다. 또 간소화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평균 다섯 번 차리던 밥상을 세 번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뷔페 방식을 접목하는 '퓨전식 상차림'도 적용해 본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남성들에게도 역할을 제시해 준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설거지다. 설 새 없이 나오는 수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다 보면 허리와 등이 빠근해진다. 높이 10~15cm의 발판을 마련해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면 허리 부담이 적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앞으로 뒤로 좌우로 구부리고 펴주어야 한다. 만약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다음날 온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계피차를 복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서있을 경우 목과 허리에 모두 무리가 가게 되므로 분담할 일을 바꿔 하거나 자주 쉬어주는 것이 좋다.

몽진 근육과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데는 두피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 두피를 마사지 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아래쪽(지문)이 두피에 닿도록 세워서 한다. 날카로운 손톱이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 두피 마사지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것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효과가 크다. 건성 두피의 경우 매일 마사지하고, 지성 두피는 손과 두피가 마찰돼 나오는 유분이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진통효과가 큰 엔도르핀을 생성시키고 근육을 한꺼번에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 준다. 게그프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상하는 주부에게는 남편 등 가족의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보상의 표현으로 선물을 하거나 여행가기 또는 명절 전 후에 집안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잠시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육체적 피로를 줄이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초래되는 근육 긴장의 이완을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도 어깨나 허리 등의 근육통이 남아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진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해 막힌 기혈순환을 정상화시켜 주면 만성적인 통증이나 화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기고



이재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올해 5월로 예상된다. 목전에 닥친 의정서 발효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업계에 강타하고 있다. 1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관련 첫 공청회에서는 관련 업계 및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뿔뿔하게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혼란'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생물산업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유라는 3가지 목적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이 맺어졌다. 이 가운데 나고야의정서는 세 번째 목표인 '이익의 공평한 공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규범이다. 이의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남생물산업 도약의 기회

정서가 발효되면 자원 이용국 보다는 자원 공여국의 입장이 크게 강화된다. 이 의정서 발효로 인해 생물자원 주권의 무게중심이 생명공학 기술을 가진 선진국에서 토종 유전자원을 가진 후진국으로 옮겨갈 것이 분명하다. 생물자원을 둘러싼 나라들 간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다.

세계 각국은 생물산업을 21세기 국부 창출의 첫째 성장동력 분야로 꼽고 있다. 세계 생물산업은 현재 연간 700조 원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5배를 상회하는 3700조 원에 이를 만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 생물산업 경쟁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기술이나 자원 모두 부족한 편이다. 지금도 매년 약 1조50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외 생물자원을 수입하여 사용한다. 바이오원료의 70~8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약,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업계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전남을 생물소재 원료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민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생물산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재)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치하고 그 아래 화산 생물약연연구센터,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곡성 생물방제센터, 장흥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등 7개 특화센터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생물산업클러스터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남이 비교우위를 갖는 특산생물자원을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 소재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의 화장품기업들과 손잡고 '3G 바이오 친환경생물소재 고도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호남권 선도전략산업으로 바이오식품과 바이오합성소재로 생물사업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의정서 발효는 수입소재에 의존하던 기존 생물관련 기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남도 차원에서는 유리의 측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이 지역에 기원을 둔 독자적인 생물자원을 잘 발굴하지만 한다면 그 가치는 훨씬 빛날 것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특산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남의 토

종 생물자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런 자원을 글로벌 천연생물소재로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전남은 우리나라 타 지역에 비해 토종생물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서만 자라고 있는 한국 토종식물은 759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남 토종식물은 223종으로 전국의 30%가 분포하고 있다. 지리산오갈피나무 등 지리산권 69종을 비롯 백운산, 월출산, 두류산, 백양산 등 산악지대와 흑산도의 넓은참가시나무를 비롯 거문도 홍도 등 섬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생한다. 이 가운데 갯방풍, 두루미천남성 등 161종은 희귀식물이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은 이런 토종식물에 대한 성분 분석과 아울러 국제사회에 우리 토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즉 바이오마커를 찾아내서 가급적 빨리 등록해야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이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다. 의정서에 따르면 토종 생물자원이 어느 나라 것인지 보다는 어느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토종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대형 축산기업 육성, 영세축산농과 갈등만 일으킬 것

요즘 축산농가 사람들은 전화불 붙잡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소가 값이 최하로 떨어져 축산농가가 다 죽을 판인데, 지난번 농식품부장관이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 중 스위스 네슬레와 같은 연매출 10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형 축산기업을 5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이제 우리나라도 브라질이나 칠레 같

은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거대한 대기업형 축산 농가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거대한 축산기업이 생겨서 얼마나 좋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지금까지 잘해온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규제와 같은 제도에 가까운 질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 닫고 할 일 없

서 도시로 짐 싸들고 이주하는 것 뿐이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는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아마존의 밀림을 불태우고 그곳에 수만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사육하고 도축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그 광활하고 드넓은 땅에서 가축을 마치 씨앗 뿌리듯 늘려서 키우는 국가와, 손바닥 만한 땅의 농촌 한 귀퉁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밝아며 축산을 하는 우리의 현실과 단소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축산기업 2~3곳이 우리나라 축산을 장악한다면 전업 축

산농가는 그들 글로벌 축산기업에 끼워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농촌에서는 구제역과 FTA 때문에 하루아침에 쓰러져 나가는 농가들이 한두 가구가 아니다. 그로 인한 농민들의 생존대책 마련은 제대로 수립해 주지 않는 양쪽에 느닷없는 대기업형 축산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국내 20만 축산 농가들은 외국 축산 농가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형 축산농 육성은 기존 영세 농가들과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맞게 할 것이다. ▲권정애·순천시 가곡동

無等鼓

역사 이래 정치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어느 사회에서도 정치적 리더는 대부분 남자였을 뿐 아니라 정치를 집행하는 이들도 남자였다. 여자들은 정치적으로 강한 남자와 혈연·부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신라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이라는 여성 군주가 있었고, 고대 일본에도 스이코(推古), 사이메이(齊明)라는 여성 군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여성 군주가 여럿 있었다. 카이사르와의 연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결혼으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다. 중세 유럽에는 가장 유명한 처녀 군주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를 포

중국어는 당대(唐代)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유명하다. 측천무후는 그 이전과 후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영국에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이 있었다.

최근 민주당중앙이 한병숙 신임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 1, 2당을 모두 여성이 이끌게 됐다. 여기에 진보세력을 추스리고 있는 통합진보

여성천하



당 이정희·심상정 공동 대표까지 더해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여성 정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 총선, 12월 대선이라는 승부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 여성 대표가 어떤 차별화 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썩은 정치로 표현되는 최근의 정치판을 이들이 어떻게 변모시키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최재호 경제부처장 l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